

이태리 원조현황

1. 원조목적

· 이태리 개발원조체계는 1987년에 제정된 법률(Law No.49 of 1987)에 기초하고 있음

– 개발협력의 목적

◆ UN 헌장에 의거, 인간화합과 인권실현을 추구함

“Development cooperation is an integral part of Italian foreign policy and pursues the ideals of solidarity among peoples, seeking the fulfillmen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anctioned by the United Nations and EEC-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States) conventions”

– 구체적 목표(specific aims)

① 기본욕구 충족(satisfying basic needs)

② 인간생활 보호(safeguarding human life)

③ 식량 자급자족(encouraging food self-sufficiency)

④ 인력자원 확충(enhancing human resources)

⑤ 환경보전(environmental conservation)

⑥ 자주적인 경제.사회.문화 발전 촉진(promoting self-relia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 1995년 범부처간 경제계획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Economic Planning, CIPE)는 「신 개발협력 정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a New Policy on Development Cooperation)」을 발표함

– 개발 협력의 목표

① 정치적 목표

▷ 주요한 산업국의 하나로써 빙국에 대한 원조노력에의 참여 확인

▷ 이태리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국가의 안정 강화

▷ 환경, 여성 등 전세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범세계적 이슈의 해결에 기여

② 경제적 목표

▷ 개도국 국민들의 이민의 주요한 원인인 빈곤을 경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

▷ 수원국의 자조노력을 위한 경제개혁을 지원

▷ WTO 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 전환 지원

③ 인도적 목표

▷ 국제적인 자연 및 인재의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지원

* 이태리의 개발협력은 원조형태에 상관없이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1999년 외무부 개발협력국은 빈곤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Poverty Reduction Guideline)을 채택함

- 빈곤감소는 이태리 개발 원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 빈곤감소를 위한 4가지 주요 목표

① 통치와 공공 분야 경영을 향상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빈곤감소에 호의적인 제도적인 환경의 증진

②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권한이양과 개발과정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을 유도

③ 분야별 접근법과 지역적인 개발 접근법의 병합

④ 여러 다른 원조 제공자들과의 조화 속에서 실행

2. 원조체제 및 담당기관

· 이태리 시스템 “Sistema Italia”

- 이태리 개발원조 체계는 관련 정부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공유하는 가운데, 비정부 기관(NGO 및 민간연구소 등)이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형태임. 이를 ‘이태리 시스템(Sistema Italia)’이라고 명명함. 정부내에서 개발을 관掌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처는 외무부와 재정경제부임. 양자 간 원조를 실행하는 부서는 외무부내 개발협력국하에 있는 전문 부서인 연합기술중심부(UTC : Unita Tecnica Centrale)임

· Direct 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DGCS)

- 외무부내 개발협력국 : 타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모든 개발원조활동 감독의 책임을 짐

- 외무부는 ODA 예산의 27%를 단독으로 집행하며, 51%를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담당함

· 재정경제부(MFE)는 외무부와 공동집행 예산과 더불어 이탈리아 ODA의 18%를 독립적으로 담당

함. 단 외무부에 비해 전담인력은 크게 부족

- 기타 농업부, 환경부, 생산 활동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등에서 일부 ODA 집행
- NGO는 DGCS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NGO 단체들은 Associazion ONG Italinae 이라는 협의체를 통해 DGCS와 정책대화 및 교섭을 실시함
 - 2003년 171개의 NGO 활동 : 2003년 116개의 프로젝트 집행(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동)
 - 인도적인 원조, 개발지원, 여론 형성 등에 관여

3. ODA 규모

- 2003년도 ODA 규모: US\$ 2,433백만불 (ODA/GNI 0.17%)
 - 2003년 ODA 총액기준으로 볼 때 DAC 22개 회원국 중 미국(16,254백만불), 일본(8,880백만불), 프랑스(7,253백만불), 독일(6,784백만불), 영국(6,282백만불), 네델란드(3,981백만불)에 이어 7위 규모임

〈이태리의 연도별 ODA 및 ODA/GNI 추이〉

(단위: US\$백만)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ODA	ODA/GNI								
1,806	0.15%	1,376	0.13%	1,627	0.15%	2,332	0.20%	2,433	0.17%

※ 자료 : OECD, 연도별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4. ODA 지원현황

가. ODA 규모 : US\$2,433백만 (2003년)

- 양자간 ODA 규모 : US\$1,061백만 (43.6%)
- 다자간 ODA 규모 : US\$1,372백만 (56.4%)

나. 10대 수원국 (2002 – 2003년 평균 기준)

- 10대 수원국은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이디오피아, 튜니지, 기네비소, 아프가니스탄, 중국, 팔레스타인, 알바니아 순으로, 동 국가들은 최빈개발국(LDCs) 또는 저소득국(low-income countries)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임.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비율은 전체 ODA의 약 31.4%(양자 및 다자 통합 기준) 점유

(단위: US\$백만)

순위	국명	지원규모 (2002 - 03년 평균)	점유율 (2002 - 03 평균)
1	모잠비크	231	9.5%
2	콩고민주공화국	225	9.2%
3	탄자니아	67	2.7%
4	이디오피아	48	2.0%
5	튀니지	35	1.4%
6	기네비소	35	1.4%
7	아프가니스탄	33	1.3%
8	중국	33	1.3%
9	팔레스타인	31	1.3%
10	알바니아	26	1.1%
합계		764	31.4%

※ 자료 :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상위 10대 수원국 추이 (%은 양자간 원조증 비율)〉

순위	국명 (1991–1992)	%	국명 (1996–97)	%	국명 (2002–03)	%
1	알바니아	10	말타	6	모잠비크	21
2	모잠비크	9	우간다	6	콩고민주공화국	20
3	튀니지	7	보스니아	5	탄자니아	6
4	중국	6	이디오피아	5	이디오피아	4
5	아르헨티나	6	요르단	4	튀니지	3
6	모로코	6	알바니아	4	기니아 비소	3
7	이집트	5	니카라구아	4	아프가니스탄	3
8	탄자니아	4	모잠비크	4	중국	3
9	이디오피아	3	아르헨티나	4	팔레스타인	3
10	전 유고슬라비아	2	콩고민주공화국	4	알바니아	2
합계		46		46		69

다. 지역별 지원현황 (양자간 ODA 기준)

- 2002–2003년 지역별 분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지역은 5%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2003년에는 72%가 아프리카 지역에 지원되었으며, 63%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로, 9%가 북부 아프리카로, 10%가 아시아로, 7%가 아메리카로, 5%가 유럽으로, 6%가 중동으로 배분되었음

(단위: %)

지역	1982 – 1883	1992 – 1993	2002 – 2003
유럽	12.1	10.1	5.3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	9.0	16.4	7.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9.7	39.7	68.2
북중미	2.6	3.4	3.7
남미	5.6	11.4	2.9
중동	4.8	2.3	4.8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1.6	2.2	3.9
극동아시아	4.6	14.4	4.0
오세아니아	0.0	–	–
합계	100.0	100.0	100.0

※ 자료 :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32

라. 소득그룹별 지원현황 (양자간 ODA 기준)

- 최빈개도국(LDCs)에 68.4%, 중저소득국에 23.2%를 지원하고 있음

(단위: %)

지역	1982 – 1883	1992 – 1993	2002 – 2003
최빈개도국 (LDCs)	60.1	39.0	68.4
기타저소득국 (Other LICs)	5.3	7.7	6.6
중저소득국 (LMICs)	22.4	44.7	23.2
고중소득국 (UMICs)	4.1	7.8	1.8
고소득국 (HICs)	–	–	–
MADCT ¹	8.1	0.8	0.0
합계	100.0	100.0	100.0

주 1) MADCT: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동 국가에 대한 지원은 OA(Official Aid)로 분류).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32

마. 분야별 지원현황 (2003년도)

- 원조의 많은 예산이 부채탕감(46.1%)에 쓰이고 있음(DAC 평균은 13%에 불과)

- 인도적 지원
 - 긴급 인도적목적의 이니셔티브에 연간 EUR 1백만불(USD 13백만불)을 지원
 - 개발협력국내에 인도적 지원과 식량원조 담당부서인 Office VI에서 담당

- Office VI의 주요 업무

- ▷ 국제 기관들과의 협력하에 긴급구호의 판별, 관리, 감독
 - ▷ 농업지불기관인 Agricultural Payments Agency 와 협력하여 식량원조 실시
 - ▷ 긴급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는 대사관의 회계감사

- 민간부문 지원(Private Sector Development)

- 지원 목적

- ① 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이태리 중소기업의 개발경험 전수
 - ② 이태리의 안보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 민간부문 지원 필요
 - ③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통한 이태리 국내기업의 국제화에 기여
 - ▷ 2002년 EUR 130 백만불(USD 170백만불) 지원(44개의 무상원조사업)
 - ▷ EUR 130백만불의 연차관 지원
 - ▷ EUR 7백만불의 이태리 기업의 외국 직접투자 실시

- HIV/AIDS 지원

-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ODA 지출액의 80%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됨.
 - 주로 NGO, 이태리 국립보건기구,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
 - 세계보건기구(WHO)의 ‘말라리아퇴치 이니셔티브’, ‘결핵퇴치’, ‘AIDS 퇴치 이니셔티브’ 등에 기금 지원
 - ‘AIDS, 결핵, 말라리아에 대항하는 세계기금(GFATM :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에 2001–2003년간 EUR 204백만불, 2004–2006까지 EUR 300백만불 서약

- 성, 청소년, 장애인 지원

- 2000년 개발협력국내 여성, 청소년,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부서인 Office XIII 설치
 - 이태리 개발협력에서 여성문제를 다양한 분야에서 주류화하는 시도

- 농업자원에의 접근성 향상, 중소 기업이나 금융 혹은 직업훈련에의 여성 접근성 향상 등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 소개
- 인도주의적 원조에 있어서 성문제를 주류화하기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의 성문제(Gender in Emergencies)”라는 안내서 발간

· 정보기술 및 전자 정부 지원

■ 지원 목적

- 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통해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 향상, 민주적인 개발 촉진
- ② 외국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능력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증대
 - 이태리 기술과학부는 개발협력국과 협력을 통해 전자정부 프로그램 실시
 - UNDP, 유엔 경제사회부, Gateway 재단 등에 USD 16백만불 지원

◆ 2003년도 분야별 지원실적

- 부채탕감 46.1%, 사회 및 행정인프라 14.1%, 경제인프라 1.6%, 생산 2.3%, 긴급원조 6.9%, 다부문 6.4%, 프로그램 5.3% 등
- 경제인프라 분야는 10년전에는 24%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1%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분야	2003년도
교육(기초교육)	1.0%(0%)
보건(기초보건)	5.0%(4.9%)
인구	0.1%
식수 및 위생	0.5%
정부 및 시민사회	2.6%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	3.9%
소계	14.1%
교통 및 통신	0.6%
에너지	0.2%
기타	0.8%
소계	1.6%
농업	1.5%
제조업, 광업 및 건축	0.8%
무역 및 관광	0.0%
소계	2.3%
다부문(Multisector)	6.4%
프로그램원조(Programme assistance)	5.3%
부채탕감(Action relating to debt)	46.1%
긴급원조(Emergency aid)	6.9%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3.7%
기타(Unspecified)	13.7%
합계	100%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4 Report, Table 19

5. ODA 예산 및 조직운영 동향

가. ODA 예산

· 총괄 현황

- 1990년 후반에 이탈리아 ODA는 감소하였으나, 2000년 peer review 이후 약간 증가함
- 이탈리아 ODA는 정부의 적자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불규칙한 형태
- ODA/GNI 비율은 2002년 0.20%, 2003년 0.17%로 약간 감소함
- 5%의 유상원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상원조의 형태
- 2000년 조건부원조의 비율 62%, 2001년 92%가 조건부 원조 등 대부분 조건부 원조임.
- 여타 DAC 회원국에 비해 다자간 원조 비율이 매우 높음(약 50%)
- 중점 지원지역은 아프리카이나, 총 수원국은 2003년 118개국으로 여타 DAC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많음
- 부채탕감이 전체 ODA의 약 50%를 차지하여 ODA 증가에 실질적인 요인이나, 2006년 부채탕감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원조 지원방식 마련이 필요함.
- 2002년 바르셀로나 회담에서 2006년까지 총 원조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서약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ODA의 113% 증액이 필요함

· 양자 및 다자간 원조

- 2002년 ODA의 양자간 원조비율은 DAC 평균인 73%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이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1998년 35%, 2003년 49%)
- 이태리는 DAC 회원 가운데에서 다자간 원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 (2000년 65%, 2003년 51%가 다자간 원조에 이용되었고, 2002년 DAC 평균은 27%임)

◆ 이태리가 다자간 원조에 의존하는 이유

- ① 거래 비용이 낮음
- ② 이탈리아의 국제적인 위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유
- ③ 국제사회에서의 의무 수행
- ④ 양자간 원조시스템에 대한 이탈리아 국내의 불신 등

◆ 다자간 원조의 지원처

- 총 ODA의 35%(다자간 원조의 70%)가 EC(European Commission), 8%가 UN, 1%가

세계은행, 1%가 지역 은행, 6%가 기타 다자기구에 지원됨

◆ DAC 평가

- 다자간 원조 예산계획시 성과 중심의 접근법 개발 필요
-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예산계획 필요

· 부채탕감

- 이탈리아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부채탕감을 적극 실천해 옴
- 1999년 ‘고부채채무국을 위한 이니셔티브(Enhanced Heavily-indebted Poor Country Initiative)’ 이후에 시민사회와 정당, 카톨릭 교회의 지지에 힘입어 2000년 법안 마련
- ODA에 관련된 부채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적인 부채까지 탕감하였고, 중간 지불예정이었던 부채 또한 100% 탕감해줌
- 법률상 명시된 부채 탕감의 조건 : Good governance, 전쟁의 포기, 빈곤 퇴치에의 의지 등
- 2002년 총 985 백만불에 이르는 부채탕감, 548백만불을 개발 활동으로 전환함.

◆ DAC 평가

- 부채의 탕감은 수원국이 빈곤위치를 위한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실천을 공약한다면 MDGS달성을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부채탕감에 추가적 재원이 필요함
- 따라서 공여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원조없이 부채탕감만으로는 빈곤퇴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음
- 부채탕감의 증가는 새로운 ODA 지원 감소가 따르는 점을 감안, 지나치게 부채탕감에 의존하여서는 안됨.

나. 조직운영

· 외무부 개발협력국(DGCS) 직원 구성

① 직업 외교관들

② 임시직 파견 근무자(총인원의 29%) : 다른 부서나 공공 행정직에서 임시 파견자

③ 개발 전문가(계약직)

■ UTC에 있는 분야, 테마별 전문가

* 연합기술중심부(UTC : Unita Tecnica Centrale) : 개발협력국하에 있는 전문 부서

■ 국제기구 종사 경력이 있고, 개발협력국의 주제별, 지역별 직위에 임명된 일반직 직원

- ▷ 직제정원 : UTC 전문가 120명, 일반직 직원 30명
- ▷ 현원 : UTC 61여명, 일반직 20명(UTC 직원의 98%가 45세 이상, 52%가 55세 이상의 고령)
- 인력운용상 문제점 : 외교관과 개발 전문가들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음. 지도적인 지위에 있는 외교관과 임시직원은 빨리 교체되는 반면,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계속 남게 되는 약점이 있음

· 개발협력국의 직원수

- 2003년 448명(1993년 580명에서 감소)
- 프로젝트의 실행과 다른 실행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단기간의 기술적인 지원이나 준 전문가를 고용함.
- 원조규모면에서 DAC 회원국과 비교하여 절대 직원수가 부족하고, 향후 양자간 프로그램 확대에 대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함

〈 개발협력국내 각 부서들의 기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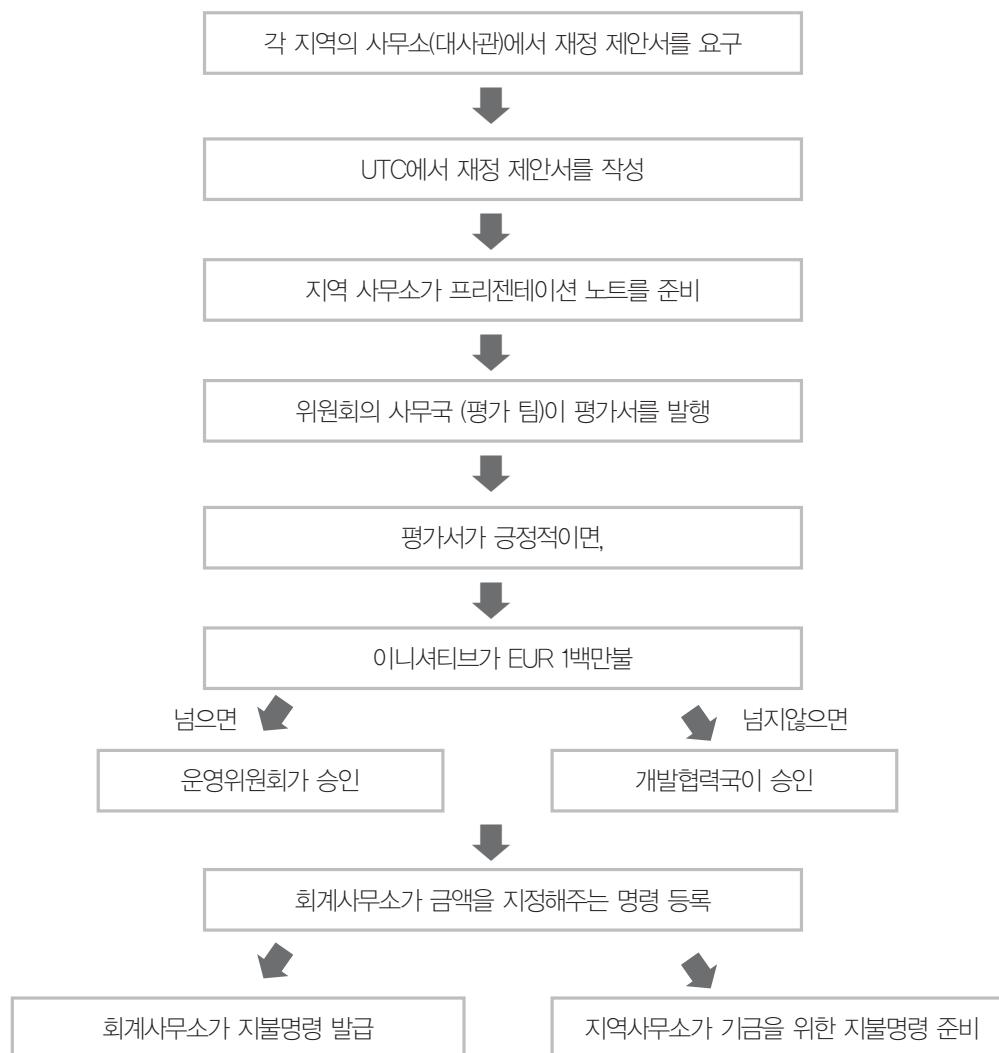
기 능	구 조
정책분석, 기획 및 통계보고	Office I 소관사항: 섹터별 정책, 원조지원 관련 기획 및 프로그래밍, 통계보고 및 데이터베이스, 연례의회보고, 일반대중에 대한 정보공개 및 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 글로벌기금(Global Fund on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관련 업무
국제기구 및 EC와의 관계	Office II 소관사항: UN 및 관련 국제기구(지방적 기여 기획업무 포함), 그리고 EC와의 관계(이탈리-EC간 골격조약 실행 관련 외무부 유럽통합국과의 상호협조 업무 포함) 업무
수원국과의 교섭	Office III, IV, V 소관사항: Office III은 유럽, 지중해, 중동 지역, IV는 시하라 이남 아프리카, V는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원조정책을 담당함. 각 office는 외무부 내 각 유관 지역국과 상호협조함. 특히 양자/다자/양-다자간 협정을 통해 공약한 국별 프로그래밍 및 자금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짐
긴급구호와 식량지원	Office VI 소관사항: 긴급구호 및 식량지원 기획을 통해 각종 人災 및 자연재해에 대처함(긴급구호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포함)
이태리 NGO와의 관계	Office VII 소관사항: NGO 활동, DGCS가 마련한 자금이용 승인 및 허용, NGO 주관 프로젝트 공동자원조달, NGO와의 공동 프로젝트에서 NGO가 고용한 자원봉사자 및 외국국적 전문가들의 지위 등을 다룸
재정 관련기관과의 관계	Office VIII 소관사항: “재정관련 협력” 사항을 다룬. 여기에는 민간부문개발, 국제수지균형 지원, 연화차관(soft loan) 및 부채탕감 조치 등이 포함됨
이태리 개발협력 교육 및 장학제도	Office IX 소관사항: 개발협력 이슈 및 장학금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이탈리아의 연수프로그램 자금 담당
법 무	Office X 소관사항: 입찰절차, 계약, 대정부소송 등과 관련된 문제에 법률자문 제공
정부조달	Office XI 소관사항: DGCS의 각종 사업 및 수원국에서 DGCS가 직접 관리하는 프로젝트 실행 담당
인 사	Office XII 소관사항: 기간제 계약직 인력 및 DGCS에 파견된 인력, DGCS의 개발협력 수원국 현장사무소 행정관리 담당
여성, 소수자 및 장애자 관련	Office XIII 소관사항: 수원국내 여성들의 활동 장려를 목표로 하는 각종 분석 및 정책제안, 개발협력 과정에서 소수자 및 장애자 보호 등 담당
기술자문	UTC 소관사항: 프로젝트 식별, 수립, 사정(appraisal),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관한 기술지원
품질관리	조정위원회 사무국 및 동 위원회 산하 기술평가유닛 소관사항

6. 프로젝트 집행 절차(양자간 프로그램)

· 프로젝트 승인 절차

- 개도국 주재 대사관에서 양자간 프로그램 요청
- 요청된 프로젝트는 개발협력국내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
 - ▷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프로젝트는 심사를 거침
- 개별 프로젝트는 UTC에 있는 직원이 전담 :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개발전략과의 상관성 등을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프로젝트 팀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검토
- 프로젝트 승인 절차에 상당한 기간 소요 : 최소 3년 소요
 - ▷ 운영위원회에서 프로젝트의 승인이 끝난 이후에도 예산회계 사무국(재경부 부속기관)에서의 예산 승인 기간이 약 6개월이상 소요

〈프로젝트 승인절차〉



7. 개발 정책 동향

- 개발정책의 일관성
 - 개발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내 이익집단 및 여타 정부기관과의 합의뿐만 아니라, 통상이나 농업분야에 있어 EC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안보 등에 있어서 EU의 입장 반영 등 정책일관성을 위한 국내외적인 합의 필요
 - 특히 농업분야에서 EU의 공통된 농업 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유럽의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이는 개도국의 농업 분야에서의 생존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이태리 개발협력 정책수립 및 우선순위 결정등에 영향을 줌
- 외국직접투자와 개발정책의 통합
 - 외국직접투자의 수출국으로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태리는 개도국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 외국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
 - 개발협력국은 양자간 및 다자간 통로를 통해서 개도국에 대한 이태리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개도국에 대해 합작투자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무상 대부 조건임
 - 다자간 측면에서는 UNIDO, ITPO(Investment and Technology Promotion Office)에 의해 지원함. ITPO는 재정 심사, 적합한 파트너 선정, 감사 등 각각 다른 투자 단계에 걸쳐서 개도국과 이태리를 연결시켜주고 있음
- 이주(migration) 정책
 - 지난 20년 동안 이태리는 이주민들을 내보내는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국가로 탈바꿈함. 이주는 OECD 국가들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됨. 이주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총액은 국제 개발원조 총액보다 많으며, 이는 국가의 재정균형을 유지하고 또한 이주자 본국의 가장 빈곤한 계층의 가구들로 전달되고 있음
 - 2002년 이래로 이태리는 이주민들을 위한 국제기구(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워크샵을 지원하고 있으며, IOM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2001년 이태리내의 이주민들의 송금액은 EUR 749백만불이며 송금액의 54%는 개도국으로 송금되었음
 - 이주와 개발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태리내의 아프리카 이주자들의 재정적, 인력 자원을 통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도적, 경제적인 능력 강화 등을 위해 합리적인 이주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것임

- 비조건부(Untied) 원조
 - 2000년 조건부원조의 비율 62%, 2001년 92%가 조건부 원조 등 대부분 조건부 원조임
 - 이태리 정부는 최빈국에 대한 비조건부 원조를 하자는 DAC 권고에 서명을 하고, OECD와 EU내에서의 비조건부 원조를 통한 개발협력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니셔티브를 지지해왔지만, 이는 국내의 비즈니스 분야의 저항에 부딪혀 옴
 - 원조를 비조건부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이태리 원조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이나, 이태리로서는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지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며, 한편에서는 원조의 효율성 증대 등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는 원조로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음

8. 2004년 DAC 동료평가 주요 결과

- 개발원조 정책
 - 이태리는 G8의 선진국이며 EU 회원국으로서, 2003년도 OECD 중 7번째 회원국임. 2003년 총 원조액은 USD 2,433 백만불이고 GNI대 원조비율은 0.17%임. 2002년 바르셀로나 수뇌회담에서 2006년까지 총 원조액을 2배로 늘리겠다고 서약하였음
 - 이태리의 개발정책 관련, 현재의 개발 시스템과 절차의 개혁이 필요함. 특히 경영적인 측면은 너무 세세하지만 원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1987년에 제정된 개발원조 법의 개정이 필요함
 - 개발원조 목적에 이태리 자국의 이익을 명시하는 좀 더 분명하고 공적인 접근이 필요함. 개발원조의 이익은 곧 공여국의 이익과 상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최근 DAC 몇 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명확한 개발협력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함
 - 개발협력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외무부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함. 현재 개발안건에 대한 정책 리더십이 4명의 차관들에게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외무부(개발협력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부족함
 - 2000년 이후 문서화된 개발정책 발표가 거의 없었는 바, 개발정책 일관성을 위해서 정책 성명이 필요함. 아울러 해외직접투자와 개발협력의 관계에 대한 투명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2015년의 기한까지 MDG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 활동에 있어서 명확한 실행전략 마련 필요

- 원조배분 및 예산 집행

- 2002년 바르셀로나 회담에서 이태리는 2006년까지 GNI 대비 ODA를 0.33%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서약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질 ODA를 113% 증액시켜야 함. 아울러 지금까지 이태리 ODA 증가의 주요 요소였던 부채 탕감이 2006년에 만기되기 때문에, 상기 서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ODA 증액 계획이 필요함
- 이태리는 DAC 국가중 다자간 원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자간 원조와 양자간 원조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원조 수행결과에 기초한 피드백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국가별 원조배분은 특정한 기준이나 혹은 성과 심의 과정에 입각하지 않음에 따라 명확한 원조 배분기준 마련이 필요
- 지원분야별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야가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어 제한된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집중 지원분야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자간 원조에 있어서 성문제, HIV/AIDS, 빈곤 감소 등의 문제가 개별 프로젝트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음에 따라 이들 이슈들을 전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주류화시킬 필요가 있음

- 원조관리 및 실행

- 외무부 내에서의 프로젝트와 예산 승인 절차의 복잡성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예산기획이 단년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년도로 이루어지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태리는 다른 DAC 국가들같이 원조 실행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 실행 효율성을 평가하고 수행결과의 피드백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 마련 필요

- 외무부 인력부족 문제

- 개발협력국의 인력 규모가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에 있고, 기술 전문가들의 인원도 실제 정원의 절반밖에 채용되지 않음으로써, 비슷한 원조규모를 가진 DAC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움
- 따라서 구체적인 인력시스템이나 운용 계획 마련 필요

- 대국민 인식제고

- 2002년 90%의 국민이 개발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으나, 현재의 원조시스템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표시하였음. 또한 이태리 NGO들은 다른 OECD 국가의 NGO들과 같은 강력한 지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감안, 원조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 및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이태리 외무부 조직도 〉

